

나눔터

2004·가을

제48호

- 2● 똘다! 상담소
- 4● 열린터 이야기 | 조금은 특별했던 열린터의 여름캠프 이야기
- 6● 하담이야기 | 하담은 지금
- 9● 여기는상담실 | 친족성폭력 실태와 현황 (2001년 ~ 2003년)
- 13● 기획특집 | 2004년 8월 13일 달빛 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는다.
| 세계의 밤길 되찾기 운동
- 21● 기획Ⅱ | 반성폭력 교육활동 개괄
- 24● 쟁점과 입장 | 아내강간 불인정은 남성편향의 과소범죄화
- 2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 I |
아동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29● 학술 I | 싸우는 영혼, 변화하는 여성들
| 좌담 - 마음 속 싸움의 크기를 키워라
- 36●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Ⅱ | SBS 보도 취재 / 제작의 인권보호 7대 지침
- 37● 지금 법정에서는 |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 -왜 자꾸 무죄라고 하나
- 39● 상담현장 Q&A
- 40● 상담원 선생님은 멋쟁이! | 언제나 웃는 얼굴로 상담소를 환히 비춰주는 강영순 선생님
- 43● 이웃집 놀러가기 | 2차 피해 없는 의료인, 법조인 되기 사업을 진행하는 부산성폭력상담소
- 44● 미리보는 상담소 | 다시, 여악여락
|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 2004 프로젝트 팀
- 48● 회원소모임 동정 | 시골벽적 재미나는 회원소모임들
- 49● 미담 릴레이
- 50● 아낌없이주는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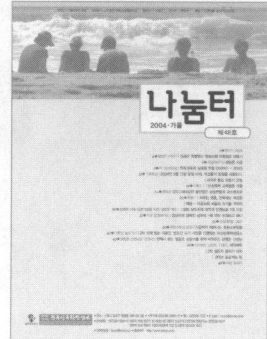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 사무전화 (02)338-2890~2 ● 팩스 (02)338-7122 ● E-Mail : ksvrc@korea.com
● 전화상담 : (02)338-5801~2 성폭력 피해 생존자 단기보호시설 열린터 입소문의 (02)338-3562/Fax (02)338-1007
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지킴이동체 하담 입소문의 (02)338-3563
● 인터넷상담 : ksvrc@chol.com ● 홈페이지 : http://www.sisters.or.kr



뭔다! 상담소



표지사진 :
열림터 여름캠프 (2004. 8)

7/1~7/5 베이징 +10 동아시아 NGO 포럼



95년의 북경여성대회에서 합의된 강령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동아시아 NGO 포럼이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에서 모인 총 950명의 참가자들은 빈곤, 성매매, 전쟁속의 여성, 동성애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80여개의 워크샵에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본 상담소 2인을 포함하여 총 40여명이 참여하여 아시아의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7 성폭력특별법 10주년 기념 토론회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면서 기대했던 성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점검해보고자 본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했던 이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문제, 수사상의 문제, 사회의식의 변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제도적인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7/23 신규회원환영회

회원에게 상담소를 알리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회원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상담소가 하는 일을 알리고, 상담소에 바라는 점 등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자주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해요~

7/26~8/13 2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2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총 45명이 상담원 수료증을 받아 새로운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내 높은 열의로 참여하시던 21기 선생님들 중 절반 이상이 이후 실습을 하겠다고 자청하시기도 하였습니다. 21기 상담원 선생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8/2 월례포럼 여성운동의 제도화

본 상담소에서는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연구교수 정경자 선생님이 발제자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인 윤정숙 선생님과 본 상담소 활동가이자 관련주제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김보연 선생님이 토론자로 나와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따른 고민과 전망 등을 함께 나누어보는 자리였습니다.

8/13 밤길되찾기 달빛 시위

유영철 사건 등 2004년에는 유난히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신문지상에 연일 오르내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여성들에게 밤길을 조심하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표족한 치안대책이 나오지 않고, 여론

역시 여성들의 공포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달빛 시위>는 본 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서울 여성



의 전화, 언니네 등이 함께 모여 8월 13일 종로와 인사동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8/14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와 함께 한 평화기원 한마당

8/14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관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와 함께 하는 평화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일본군 '위안부' 들의 명예와 인권의 전당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과와 배상, 이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기도 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평화를 함께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조금은 특별했던 열린터의 여름캠프 이야기

열린터에서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2명이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름캠프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열린터에서는 여름캠프를 준비하면서 가족을 떠나온 아이들에게 다른 방식의 진심과 애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더운 여름, 9명의 아이들이 한 집에서 생활하다가 서로 지치고 짜증도 나있었던 터라,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정겨운 캠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열린터에서 일하는 이어진 간사의 부모님이 아이들이 원하는 부산에 살고 계셔서 그 곳으로 캠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치우고 반찬을 만드느라 고생하시면서도,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다며 어진샘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에 대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열린터 이야기는 이 편지글들로 구성해보았습니다.

- 나눔터 편집부 -



열린터에서의 「캠프」. 그리고 캠프의 제안에 대한 첫 질문. 「집단 상담하나요?」 함께 여행 떠나기에 대한 설렘과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다. 어쩔, 말해야 하고, 표현해야 하는 데 대한 은연의 부담을 치유라는 명목으로 서로에게 강요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짚어 본다. 자신있게 말했다.

「아니, 무조건 신나게 노는 거」 모두의 표정이 밝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놀기만 했다. 물놀이, 시체놀이, 풍경보기 놀이, 땅 밟기 놀이, 살 래우기 놀이, 열식히기 놀이... 낮잠자기 놀이 그렇게 서로를 구경하며, 가끔씩은 챙겨주며 이들의 밤과 하루의 낮을 열린터가 아닌곳. 부산이라는 곳에서 보냈다.

「겨울에 또 오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아쉬워요」 그것이 진심임을 우린 서로가 느꼈고 알았다. 그래서 초대해 주신 가족과 울음로나마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고작 3일의 시간에 「정」이라는 것도, 처음 만나 는 외딴 가족과도 서로의 「진심」이 소통되었기에 그렇게 들지 않았을까.

다음 열린터 「캠프」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가질까? 적어도 불편함이나 우려는 아닐거란 확신을 가진다. 그리고 늘 주홍글씨처럼 따라붙는 「시설」 캠프에 대한 편견의 단상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떨쳐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난 더 크게 가져본다.

- 열린터 간사 어진 -



사람은 래어 나면서 제 나름대로의 향기를 가진다. 좋은 향기를 내어 남을 기쁘게 할 수도 나쁜 향기를 내어 남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어 지고 싶은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선이.미희.희은이.진미.진현이.연주.연상이.연순이.미선이...

아이들이 제 각각의 향기를 내며 10년만의 무더위가 온 여름날 누추하고 좁은 나의 집으로 왔다. 김치를 담고 깻잎을 재우며 가슴 설레이며 기다렸다. 먼훗날 부산을 생각 하면 아름답고 좋은 향기로 기억되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땀띠가 날만큼 더웠던 무더위 속에서 장보고 음식 만드는게 힘들었지만 먹성좋은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즐겁고 행복했다.

근데 정말 잘먹던데 역시 한참 때여서 그렇겠지. 모든 것이 그립고 사랑이 필요할 아이들에게 난 사랑을 담은 식사, 간식을 더 많이 해주지 못해 아쉬웠다. 웃음이 많고 정이 많은 아이들. 같이 장도 보고 식사도 하고 마냥 정겹고 정말 이쁘던 아이들. 2박 3일이 좀더 길었으면 하고 애들이랑 아쉬워했다.

지금 폭풍우를 만나서 슬퍼한다면 그건 앞으로 만날 신세계를 만날 준비가 아닐까. 앞으로 살아 가면서 수없이 만날 고난 잘 극복하고 남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주는 사람들로 성장해서 다시 부산 오면 지난 날들이 더 값지지 않을까 싶다.

떠나는날 눈물을 보이던 아이들을 생각한다. 그건 가슴에 사랑이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보고싶은 아이들...보고싶다.
잘 웃고 재잘거리던 모습 다시 볼수 있겠지
열린터 가면 엄마에게 맛있는거 해준다는 약속 잊지마.
애들이 사랑한다 보고싶다 모두모두
-어진 샘의 어머니 김영애님의 편지 -

- ㉞ 그곳에 놀러갔을 때 정말 보통 캠프때는 배우지 못한 부모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 미희
- ㉞ 캠프를 가기 전 많은 기대와 상상을 했습니다. 가정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었기에 사실 가족이란 표현을 듣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전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난 열린터라는 시설의 이름을 깨트리고, 선생님들이 부모며 식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과 같은 이번 여행을 하면서 한편 나 자신의 처지와 다르게 화목한 가족을 보면서 눈물과 가슴속에 지워지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부럽기도 했고요. - 진미
- ㉞ 서울에 올라오니 정이 너무 그리워요. 다시 또 내려가고 싶어요. 어머니께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 꼭 올라오세요. 제가 요즘 요리를 배우거든요. 맛있는거 많이 만들어드릴게요. - 미선
- ㉞ 본지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나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아직 어머니의 사랑의 소리가 들려와요. 부산은 참 좋았어요.저는 요즘 댄스 배우고 보컬 배우고 요리 배우고... 학교에 행사도 많아서 많이 바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 사랑하는거 알지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제가 항상 있는거죠? - 연주
- ㉞ 해수욕장에서 다 탔어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다리가 탔어요. 진짜 간지러웠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는 부산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때때 많이 힘드셨죠? 운전 너무 잘하시고 음식도 너무 잘하시고...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 연순
- ㉞ 저 진현이에요. 아시죠? 막내... 천부모처럼 챙겨주시고 맛있는거 해주시고 포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별로 헤드린 것도 없었는데...천부모처럼 대해주시는 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빌 때까지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진현



하담은 지금

원 사 _ 하담지기

에피소드 1 : 도전을 이룬 여름 캠프

얼마 전 하담은 여름휴가를 함께 보냈다(8월 15-17일). 갑작스레 2명이 출발 당일 아침에 못 간다고 하여 결국 하담지기까지 4명만이 여행을 떠났다.

우리의 캠프 컨셉은 휴식과 도전이었다. 휴식은 숙소에서 자유롭게 한가로이 보내며 일상에서의 평온함을 맘껏 누리는 것, 후자는 래프팅과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래프팅도 훌륭히 마쳤지만 번지점프는 4명 모두가 포기하지 않은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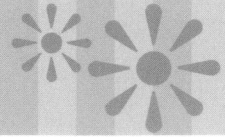
(5.5m 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한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밤에 숙소에서 타로카드를 서로에 대해 알아갔던 기억... 평소엔 속 얘기를 잘 안하던 사람도 편안하게 자기의 얘기를 하게 되었었다. 타로의 매력에 쫓욱 빠진 경험! 이를 계기로 하담에서는 타로카드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에피소드 2 : 여신타로카드로 본 하담지기의 하담운영 고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심난한 마음으로 여신카드를 봤다. 최근 하담지기로서의 역할과 그 일이 버겁게 느껴지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안내를 해주는 타로카드로 앞으로의 현명한 활동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타로 종류는 여신카드다. 따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해설서를 읽으면서 해석하곤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카드를 보고 있다^^:)



최근 하담은 생활방식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도 겪고 하담에 대한 불신의 감정도 조금씩 키운 사람도 있다. 따라서 하담을 처음 맡으면서 가졌던 이상적인 공동체, 즉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생존자들의 공동체'의 꿈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점점 현실로 느끼고 있는 중이다.

카드 해석(크로스배열법) : “하담의 운영을 현명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생각하며 카드를 봤다.

현재 인간관계에 대한 환멸, '이상'으로 여겼던 관계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가까운 과거는 영혼과 육체의 조화를 이루는 평온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힘들다. 우리는 상처받고 우울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여유가 없을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좀더 현실을 객관적/현실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 현재는 원하는 것을 향해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 나 자신을 추스르며 다음을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고, 원하는 것은 '하담의 안정', '희망적 성공'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처럼 꾸준히 진행해 간다면 결과에 소망카드인 (아홉개의 컵) nine cups이 나온 대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란다.

나는 아직까지 하담을 운영하는 하담지기보다는 하담의 다른 한 사람으로써 그들과 마주하고 얘기하며 관계를 맺어가고 싶었다. 하담지기라서가 아니라, 유사한 경험을 한 생존자로서 다른 생존자를 이해하고 또한 그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나도 그들을 지지해주지만 그들 역시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의 개념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런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하담지기이고 하담인들은 나에게서 하담지기로서의 기대하는 역할만을 원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타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잘 읽어주었고 또한 좋은 조언도 해주었다. “네가 원하는 것은 이상이고, 그 바라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좀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보기를 바란다”라고 충고하고 있다. 맞다. 타로카드의 말이 맞다. 하담지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자. 그렇다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며, 하담지기로서 하담인과 만나는 것이 지금 하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의미있는 충고로 받아야겠다.

에피소드 3 : 하담광고 “ ‘복덩이’ 찾습니다! ”

(본상담소 홈페이지에 하담광고 배너를 달았다. 내용은 아래의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해주실 후원자 = ‘복덩이’ 를 찾습니다...
현재 하담에는 가해자에 의한 추적 가능성으로 일반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 혹은 가해자에 의해 부당하게 빚을 떠안게 되어, 법적 해결 과정에 있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온종일 일을 하며 지내기에는 심신의 여유가 좀더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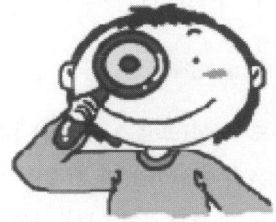
상담소를 후원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고자 하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사업장을 꾸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동시에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복덩이’ 는 위와 같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하담인을 고용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후원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언제든 수요가 있을 경우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복덩이’ 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해주세요.

복덩이는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당신에게 ‘복 많이 받으라’ 는 기원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친족성폭력 실태와 현황

(2001년 ~ 2003년)

권주희 _ 상담팀

지난 2004년 9월 1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1심에서 7년 실형을 선고한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친족성폭력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판결이라 보며, 이에 48호 나눔터에서는 본 상담소 상담현장에서 나타난 친족 성폭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본 상담소 성폭력상담은 8,669건이었고 이 중 친족성폭력은 797건으로 전체 성폭력상담의 9.2%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797건의 상담내용으로 친족성폭력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1. 친부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다.

성폭력특별법 제7조에 의하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친족으로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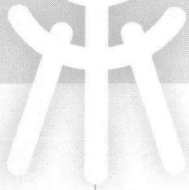
상담소에서는 친족을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과 그리고 의부, 친부, 친형제는 근친으로 이 중 친모나 의모에 의한 피해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친족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친부에 의한 피해가 249건인 31.3%로 가장 많았고, 사촌에 의한 피해가 185건 23.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또 삼촌이 111건 13.9%, 친형제가 104건 13%로 가족 내에서 가까운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표1>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 건(%))

				친족 797(100)						
근친 435(54.6)				4촌이내 혈족 319(40)			2촌이내 인척 43(5.4)			
의부	친부	친형제	기타	사촌	삼촌	조부모	형부, 제부	의형제	기타	
66 (8.3)	249 (31.3)	104 (13)	16 (2)	185 (23.2)	111 (13.9)	23 (2.9)	28 (3.6)	12 (1.5)	2 (0.3)	



2. 아동시기에 성추행이나 강간피해가 있다.

친족성폭력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전체피해의 52.4%인 417건이 성추행피해이며, 강간피해가 43.9%인 350건으로 나타났다. <표2>

또 피해자의 피해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어린이 시기에 피해가 있었던 경우가 296건으로 37.2%, 청소년기가 244건 30.6%이었고, 7세미만의 유아시기에 피해가 있었던 경우도 144건으로 18%를 차지하였다.

이를 보면 유아와 어린이 시기의 피해가 440건인 55.2%로 일반 성폭력과는 달리 많은 친족성폭력 피해가 13세미만의 아동시기 이전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시기에 성추행(153건, 19.3%)과 강간(135건, 16.9%) 피해가 가장 많다는 것이 보여 진다.

3. 피해사실을 가족이 바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친족성폭력의 피해사실을 가족들이 인지한 경우는 308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38.6%였지만, 이 중 피해 직후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가족들이 알게 된 경우는 12건으로 1.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주변인에게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도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알리는 것을 힘들어한다.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얘기했을 때, 가족들은 가해자가 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를 불신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한다.

4. 유아에게 강간피해가 있어도 가족이 인지 못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무죄의 근거로 '만 6세에 불과한 나이에 성기삽입피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정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당시 피해자가 정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표2>를 보면 7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강간도 32건이나 되고, 이 중 7건을 제외한 25건은 지속적인 피해였지만 가족이 인지한 경우는 13건 밖에 되지 않았다.

가족이 인지하게 된 시기도 피해 직후인 경우는 2건 이었으며, 대부분은 피해자가 성장한 성인이나 청소년 시기에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였다. 이는 유아시기에 강간피해가 있더라도 가족들이 모를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2〉 피해자 연령/ 피해유형

(단위 : 건(%))

피해 유형 \ 연령	유아 (7세이하)	어린이 (8세~13세)	청소년 (14세~19세)	성인 (20세이상)	미 상	계
성희롱	1 (0.1)	4 (0.5)	8 (1)	6 (0.8)	0	19 (2.4)
성추행	111 (13.9)	153 (19.3)	105 (13.2)	44 (5.5)	4 (0.5)	417 (52.4)
강간미수	0	3 (0.4)	3 (0.4)	2 (0.2)	0	8 (1)
강간	32 (4)	135 (16.9)	127 (15.9)	50 (6.3)	6 (0.8)	350 (43.9)
미상	0	1 (0.1)	1 (0.1)	0	1 (0.1)	3 (0.3)
계	144 (18)	296 (37.2)	244 (30.6)	102 (12.8)	11 (1.4)	797 (100)

5. 피해가 지속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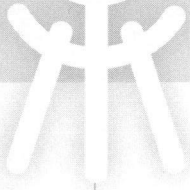
친족성폭력의 피해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가해가 중단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49%인 389건이 1번 이상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지속피해 중 83.3%인 324건이 피해횟수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에서 보여진 것처럼 친족 성폭력은 대부분은 어린이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신뢰와 친밀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더욱 커 지속적인 피해에 계속 노출될 위험이 높다.

6. 친족성폭력의 고소율은 낮다.

본 상담소의 성폭력상담 고소율은 2001년 14.8%, 2002년 12.7%, 2003년 14.9%로 12%~1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친족성폭력의 경우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체 797건 중 고소를 한 경우는 38건으로 4.8%에 불



과하였다. 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의 일반 성폭력 사건 고소율 6%보다 낮은 수치이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척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양가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가해자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 한다.


가해자의 행동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인해 고소를 한 이후에도 가족을 고소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잊고 싶어 하거나 가해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7. 서울 고등법원 이호원 부장판사 담당의 '근친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¹⁾

성폭력피해의 특성과 피해자의 후유증을 특정한 모습으로 전형화하여 사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은 검찰의 수사지침에서도 이미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과 재판이, 사실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었다는 반성에서 세워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상황과 이를 지속시키는 기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피해자다운' 것과 '성폭력피해자답지 않은' 것을 기계적으로 나누고, 피해자를 전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화석화된 논리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재단하였다. 또한 '피해자다움'을 전형화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무지한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처럼, 공판 역시 관련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이 부분은 지난 2004년 9월 10일 서울 고등법원 이호원 부장판사 담당의 '근친 성폭력 사건'이 무죄 판결된 것을 규탄하는 본 상담소의 성명서를 원용하였다.

2004년 8월 13일 달빛 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는다.

권김현영 _ 정부사업부

지난 2004년 8월 13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신촌 지역 연쇄살인 사건 등 계속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표적 연쇄살인 사건을 겪으며 공포와 불안에 떨던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시위를 조직하게 된 유래와 준비과정, 시위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였다.

- 나눔터 편집부

(1) 밤길을 되찾으려는 여성들의 움직임, 그 유래

밤길 되찾기 시위(Take Back the Night March)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이름을 붙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다지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18세기 영국에서부터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는 1973년 독일에서 연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던 거리 행진을 그 시초로 보고 있다. 이후 벨기에, 영국,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등지에서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여성들을 추모하고 성폭력을 반대하는 의미로 조직되고 시행되어, 오늘날에는 반여성폭력 이슈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밤길 되찾기 걷기 대회', '밤도깨비, 낮도깨비' 등의 이름으로 시도하려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으며, 99년에 부산지역 성폭력관련단체에서 성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의 일부로 시행되었었다.

(2) 이번 달빛 시위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번에 벌인 밤길되찾기 달빛시위(이하 달빛시위)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여성들이 밤거리에 귀가할 때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과 더불어, 언론에서 "아담한 여성들" "흰옷 입은 여성들" "목요일 저녁 특히 조심" 등 여성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면서, 여성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도하는 등 이중적인 억압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 지역 여성단체들과 대학 여성주의자들이 모여 긴급하게 조직되었다. 참여한 여성단체는 본 상담소를 비롯해 서울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언니네가 함께 하였고, 대학단위로는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숭실대 총여학생회, 서울대 여성모임인 관악여성모임연대, 연세대 총여학생회가 모여 공동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회의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유영철 살인사건 등 관련 사건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당시 보도태

도의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시위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소하게 진행 하되 기존의 집회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데 입을 모으고 준비하였다.

공동준비위원회는 밤길을 되찾아오는 것의 의미를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과 동시에, 여성의 일상이 성폭력에 대한 위협감으로 인해 얼마나 위축되고 통제되어왔었는지를 알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운신의 권리, 몸에 대한 권리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 표명하는 달빛시위의 취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1:1로 직접 만나는 방식의 캠페인 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3) 2004년 8월 13일, 밤이 기울고, 여자들이 모이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행사를 알렸지만, 당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에 대해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휴가철도 겹쳐있었으며, 금요일 밤이기도 해서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당일 인사동 남인사 문화마당에 여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거의 4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어떤 분은 이 시위소식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멀리 대구에서 올라왔다고 하기도 했고, 신문에서 보고 답답했던 심정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는 분들도 있었다. 흰 천과 후레쉬로 복장을 채비한 여성들은, 밤길을 다닐 때 필요한 남성용 에티켓과 여성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적혀진 유인물을 들고 20-30명 정도씩 짝지어 서 북과 피켓,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때 나누어준 흰 천은 살해된 여성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동시에, 그 원혼이 밤길에 다니며 여성들을 위로하고 가해 남성들을 위협한다는 것을 상징화한 것이며, 후레쉬는 1회용 촛불을 대신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밤길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했다.

8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 모인 여성들은 행진을 준비하고 본 상담소 이미경 소장의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종각, 시청, 종로, 인사동 일대를 걷기 시작했다. 거리의 시민들에게 '여성들의 안전한 밤길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나눠주며 달빛 시위에 참여하기를 유도하였다. 시민들은 대체로 신기해하거나 호의적인 반응이었으며 박수를 치기도 하였다.

9시, 여섯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던 시위대는 국세청 앞에 모여 귀신복장을 벗어던지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다닐 밤길을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몸에 들렀던 흰 천을 모두 풀어던지고, 흰 천들을 다시 묶어 모두 함께 묶이는 광경을 연출한 후, "여성을 가두지 말라"라고 외치며 흰 천을 끊어내는 것으로 퍼포먼스는 마무리되었다.

(4)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달빛 시위를 상상하며

이번 달빛 시위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호응속에 치러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하는 면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중심의 시위였다 는 한계가 지적되었고, 여성들이 밤길에서 공포가 아니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행사와 지속적 캠페인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는 과제도 남겨진 시위였다. 원래 올해 5월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 본 행사를 준비하려 하였으나 협의회의 올해 일정이 바뻐서 내년으로 미루었는데, 내년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함께 준비하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성들의 밤길을 되찾는 시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여성에게 밤길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성명서

2004년 8월 13일 달빛 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는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고, 이에 많은 여성들이 더욱 더 밤길을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의 일상적인 폭력 속에서 위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들이 알아서 조심할 것을 요구하며, 폭력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여성의 부주의와 품행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길'과 성폭력의 위협을 연결시키므로써 성폭력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 분노합니다.

이같은 언론의 보도태도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은 밤길을 배회하는, 행실에 문제가 있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성폭력가해자의 범죄,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편견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2차, 3차 피해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밤길을 다닐 때 공포와 위협을 느끼며 스스로 조심하는 등 행동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듯 왜곡된 밤길의 이미지를 부수고 새롭게 여성의 안전한 밤길을 찾고자 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만 조심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가해자 중심의 문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의 밤길 되찾기 '달빛 시위'는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동시에, 여성의 일상이 성폭력에 대한 위협으로 얼마나 위축되고 통제되어 왔는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운신의 권리, 몸에 대한 권리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표명합니다. 셋째,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성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여성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성폭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정부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불안한 치안상황을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조장하는 그 어떤 언행도, 여성들의 운신의 권리, 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의 이 모든 권리의 보장을 위해 변화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더 이상 위험한 밤길의 희생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여성의 자유를 뺏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 직업, 옷차림, 계층 등과 상관없이 거부 의사가 존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이 땅의 여성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맘 편하고 즐겁게 여성의 문화를 공유하며 거리를 활보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주는 해방의 자유로, 오늘 이 거리에서 두려움 없이 신나는 놀이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앞으로 도 계속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안전한 밤길을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는 폭력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 우리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성평등의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 우리는 정부가 다양한 여성들의 현실에 맞추어 치안대책을 정비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학교당국에 여학생들이 자유로운 밤길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로등과 비상전화를 설치하고,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남성들 역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는 행사에 지지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8월 13일 금요일 늦은 밤, 달빛시위공동준비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언니네, 서울여성의 전화,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관악여성모임연대, 그 외 달빛시위 참가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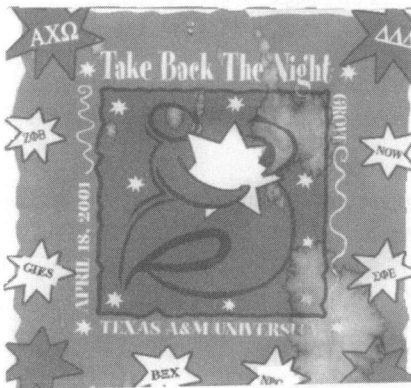


세계의 밤길 되찾기 운동 1)

이미경 _ 본 상담소 소장

- ■ 밤길은 여성들에게 두려움과 위협의 대상이 되고있다. 특히 연쇄살인이나 성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면,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들에게 ‘밤길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곤 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책임전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한 밤길은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라는 입장에서 ‘밤길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이미 30여년전부터 시작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반성폭력 운동의 전통이 되고있다. ■ ■

밤길 되찾기 운동이 시작된 배경



최초의 밤길되찾기 행사는 1973년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에서는 연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여성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한 밤길을 위한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후 벨기에, 미국, 영국, 인도, 캐나다, 호주, 대만, 한국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전한 밤길을 되찾자!(Take Back the Night, Reclaim The Night)”, “안돼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싫다는 의미다(Yes means yes, no means no!)” 등의 구호

로 대변되는 이 행사는 여성폭력의 종식을 위해 여성단체와 대학생들이 연대하여 준비하고 진행해왔다.

미국에서는 1978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5,0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밤길 행진이 시작되었다. 이후 매년 각 주와, 지역사회, 대학 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20여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연례 행사를 해오고 있다.

이 글은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2004년 가을호)에 실렸던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호주에서는 1985년 3월에 강간위기센터 전국회의를 계기로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시드니에서 200여명이 모여 밤길되찾기 행사를 처음 실시하였다. 이후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행사 날짜를 정례화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990년대 초,중반에는 8,000여명에서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밤길되찾기 행사는 점차 그 규모가 적어지는 반면,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4년 8월 13일에 여성인권운동단체와 대학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달빛시위 공동준비위원회”의 주최로 서울 종로에서 첫 달빛 시위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 이전에 1990년대 초반부터 몇몇 여성단체에서 밤길되찾기 행사를 기획하였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다가, 최근 한 남성이 2명의 여성과 노인을 연쇄살인한 사건이 터지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이 이 행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게릴라 시위형태로 진행된 이번 달빛시위는 400여명이 참여하였다.

밤길 되찾기 운동의 의미

밤길 되찾기 행사는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조직들이 준비하고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이념은 똑같다. 즉, 여성폭력에 반대하고, 폭력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폭력·가정폭력의 가해자, 또는 살인자에게 있으며, 이 폭력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각 행사의 취지와 주요 주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미시간 주의 앤 아버(Ann Arbor)에서 25회째 진행된, 2004년 밤길되찾기 행사에서 제시한 11가지의 요구사항이 제시되었다. ▶누구든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 ▶직장, 학교, 거리등에서의 성폭력 근절, ▶생존자가 무슨 옷을 입었든 무엇을 했든 폭력의 책임이 없음을 인식,▶폭력의 책임은 가해자들에게 있으며, 이들에게 적절한 법적조치, ▶관련 법조인들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교육, ▶생존자에게 무료 치료와 증거수집 등 각종 의료 서비스 제공, ▶생존자에게 질문없이 응급피임 제공, ▶사법기관의 빠른 재판진행, ▶인종,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각종 증오범죄로부터의 보호, ▶미디어의 성애화된 폭력이미지 생산의 중지, ▶행사 이후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실천 다짐 등이다.

한국의 최초의 밤길되찾기 행사인 2004년 “달빛 시위”에서는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보도 태도의 변화, 수사와 사법기관의 인식전환, 정부의 치안대책 마련, 학교 당국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남성들의 지지와 참여 등을 요구했다.

밤길 되찾기 행사의 주요 내용

밤길 되찾기 행사는 전 참가자가 함께 밤거리를 행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로 1시간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를 정하여 밤길을 걸으면서, 미리 준비한 깃발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 행사의 의미를 알리며 동참을 촉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밤길 되찾기 행사의 핵심은 거리행진이지만, 대부분 이전에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의 2004년 밤길 되찾기 행사에서는 아침 10시부터 12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여성폭력에 대한 각종 전시물을 하루종일 게시하고, 빨래줄 프로젝트(Clothesline Project)도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990년 매사추세츠 주 케이프 코드 지역의 여성들이 시작한 것으로, 생존자들이 만든 셔츠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표현하여 빨래줄에 널어서 전시하는 것으로 1995년에는 워싱턴에서 전국 규모의 전시회를 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중요한 행사로 생존자 말하기 대회(Speak-Out Against Sexual Violence)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에 본 상담소 주최로 처음 실시되었던 이 행사는 생존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피해경험과 극복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청중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의미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1시간동안 촛불의식도 갖고, 치어리더들의 공연도 있었다. 특별히 남성포럼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친 후 8시부터 거리행진에 들어갔다.



WOMEN TAKE
BACK THE NIGHT!

MUJERES RECLAMEN
LA NOCHE

婦女 入夜安全

1995년 본인이 참가했던 시드니의 밤길되찾기 행사는 시드니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하이드 파크에서 시작되었다. 2,000여명이 훨씬 넘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모였는데, 전 참가자들에게는 촛불을 나눠어지고 공원은 금새 촛불 물결을 이루었다. 진행팀에서 행사의 취지 설명과 참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근친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증언도 있었다. 간단하게 기념식을 마친 후, 모든 참가자들이 거리로 나와 경찰의 도움으로 교통이 완전 차단된 시내 한복판 길을 1시간여 걸어 서클라키라는 선착장에 도착을 했다. 이후 선착장 잔디밭에 모여 가수의 축하공연과 정리집회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거리를 행진할 때 도로변에 선 사람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환호와 응원을 보내 주던 모습이다. 어떤 남성은 “자매들이여, 우리도 함께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당시 9살로 그 행사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참가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성폭력을 이야기 하면 그때 따라 외쳤던 구호인 “Yes means yes, no means no”를 말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달빛시위에서는 특별히 많은 참가자들이 하얀 소복의 귀신복장으로 분장을 하고 손전등을 비추며 인사동 골목골목과 종로 거리를 행진 했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과 살인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추모하는 반면, 앞으로 성폭력이나 살인 등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의 의미도 함께 담은 것이다. 그리고 거리행진 중간에 전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귀신복장을 벗어던진 후, 이를 하나로 묶어 원을 만들어 모든 참가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소위 ‘안전지대’로 상징된 원 안은 좁고 답답했으며, 한여름의 무더위까지 겹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한 순간에 전 참가자들이 자유를 찾아서 그 좁은 원을 박차고 나오는 퍼포먼스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자유로운 밤길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게 해주었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성폭력추방주관을 선정하거나 포스터마련, 워십개최, 여성폭력관련 통계 발표,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자주색 리본달기 운동, 호신술 강좌마련, 공공장소에 나무를 심어서 생존자에게 바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행사기간 중에 거리행진이나 워십에 참석할 수 없는 아주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밤길 되찾기 운동의 효과, 그리고 고려할 점들...

밤길되찾기 행사의 가장 큰 효과는 안전한 밤길이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임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참가자들은 이 행사에 참가하여 자신의 주장을 소리높여 외치며 다른 참가자들과 이를 공유함으로써 밤길에 대한 공포를 벗어버리고 자신감을 얻는 신나는 경험을 한다는 점이다. 행사 참여를 통해 상징적으로 안전한 밤길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의 종식을 위해 각자가 앞으로 해야 할 실천을 다짐한다.

대부분 밤길되찾기 행사는 한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여 범국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에는 서울지역의 여성단체들과 대학내 총여학생회가 중심이 되었지만, 내년에는 전국의 121개 성폭력상담소에도 동참하여 전국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계획을 갖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준비하는 행사가 진행된다면 훨씬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이 행사의 기금을 누가 마련하는 가도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강간위기센터를 비롯한 각종 여성단체, 학교, 종교단체, 정부 등에서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금에만 의존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행사지원의 규모가 크게 좌우되거나, 자율성의 축소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밤길 되찾기 행사에 남성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초기에는 여성들만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남성들이 점차 제한적으로 참여하다가 최근에는 그 기간내에 남성포럼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남성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달빛 시위에서 참가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지만, 상당수 남성들도 함께하였다. 밤길에 대한 위험의 체감이나 일상에서의 지위는 성별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행사 참여방식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반성폭력운동에서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번 달빛시위를 바라보는 일반 남성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성폭력을 당하지”, “집에나 일찍 들어가자 이 밤중에 왜들 나와서 난리냐?”는 짜증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남성은 야유를 하며 시비를 걸어오기도 하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밤길 되찾기 행사의 전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연출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구호도 외치고, 원하는 퍼포먼스도 하는 신명나는 축제로, 희망의 행진으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외국의 밤길 되찾기 운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책과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Boston Women's Health Book Collective(1998), "Violence Against Women", Our Bodies Ourselves : For the New Century, Simon & Schuster.
- <http://www.umich.edu/~tbtn/demands.htm>
- <http://www.theear.org/TBTN/index.htm>
- <http://union.boisestate.edu/womenscenter/events/tbtn/2002/index.cfm>
- <http://www.iglou.com/TBTN/history.html>
- <http://www.campusoutreachservices.com/resources/tbtnideas.htm>

반성폭력 교육활동 개괄

정유석 _ 상담인권국

그동안 반성폭력운동은 구체적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의미를 알려내는 스티커를 붙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언론에 실태를 알리고, 특강을 하고, 공판을 모니터링하고, 법안을 마련하는 등 때로는 계획된 캠페인으로 때로는 교육의 형태로, 때로는 정책제언활동으로, 때로는 계획없이 만난 일상의 모임 속에서 부단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온 반성폭력활동들 중, 90년부터 현재까지 행해져온 본 상담소의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반성폭력 교육운동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봅니다.

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알리는 교육 및 기타수단의 부재를 꼽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현상을 타계하기 위해서 차별적 권력관계와 여성폭력의 실태를 알리기 위한 '구체적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유형을 수정하고 또한 일방의 성이 다른 성에 대한 열등성 혹은 우월성을 가진다는 관념과 남녀간의 정형화된 역할에 기반한 편견, 관행, 기타의 모든 관습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특히 교육분야에서 채택한다."(북경선언 전략적 목표와 행동강령 D.1-k)

"사법·법률·의료·사회·교육 및 경찰과 이민요원 등 이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끄는 힘의 남용을 피해가 위해서 또한 여성희생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성에 기반한 행위와 폭력의 위협의 성격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보다 적절한 곳에서는 개선하거나 발전시킨다."(D.1-m)

국내의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 활동들도 위의 행동강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크게 '차별적 권력관계'와 '여성폭력의 실태'를 알리기 위한 '대시민 대상의 종합적 교육'과 관련된,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전문집단 대상의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 중 성폭력분야의 교육은 관련 이슈를 특화해서 다루는 NGO들이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기별로는 반성폭력운동이 태동된 90년부터 관련이슈가 법제화되었던 94(성폭력특별법제정), 99년(남녀차별금지법 제정)의 세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 : 성폭력 이슈자체를 '의제화'하는 것에서 차별적 권력관계의 영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을 목표로 한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은 91년부터 기존의 각 단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특강형태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반성폭력운동의 태동과 함께 이루어져 온 90년대 초기의 교육은 성폭력을 차별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 성폭력이라는 이슈 자체를 '의제화'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설정하였다. 때문에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실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중심주제로 삼게 되었고, 반성폭력운동의 영역에서 진단되어야 할 다양한 주제들은 그것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다.

94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성폭력 이슈의 의제화'의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되면서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문제영역들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차별적 권력관계'의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접근하는 반성폭력 교육운동의 2단계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 중·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구체적 사업들을 보면, 대학내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직장내 성폭력 등으로 주제가 세분화되고 교육집단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운영자·가해자·사관학교 학생·직장·직장 중에서도 제조업·노조간부 등으로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에 있어 분화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로 성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정도가 높아지면서 반성폭력 교육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구체화되었고, 관련 법안에 관계 당국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던 것이 반성폭력 교육에 있어서의 분화발전을 더욱 추동하는 배경이 된다.

- 특수전문집단 대상의 교육 : 직접적 지원자를 찾기 위한 교육에서 각 영역의 지원자들과 만나는 교육으로.

대시민 대상의 종합적 교육과 다른 한 축으로 관련인,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전문집단 대상의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그 역할로 요구받는 집단을 관련인, 전문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교육활동이 수행된 시기를 보면 일반인의 의식변화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전자의 교육보다 좀더 앞서 준비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위기상담원 교육 등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90년, 93년부터 각각 시행되어왔는데 NGO운동의 형태로 시작한 이 교육활동은 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위탁교육의 운영형태를 갖게 된다. 90년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 지원자 양성' 못지 않게 중요했던 부분이 각 사회영역에서 피해자 혹은 피해사건을 접하게 될 인사들을 교육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활동은 학교 현장지도자 교육, 대학내에서 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내 실무자 교육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수전문집단 대상에 있어 90년대 초반의 교육이 운동단체 내에서의 지원자 양성이 목적이었다면, 중반기 이후로 접어들면서는 운동단체 뿐 아니라 중범위적 수준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각각의 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각 영역의 지원자 양성'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피해자 지원의 역할을 여성단체 활동가가 주로 담당했던 것에서 지원자의 범위가 확장되고, 일반인들이 직접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움직임은 후반기에 이르러서 성폭력 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교육, 의료진 교육, 법조인 교육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분야에 대한 교육활동은 북경행동강령에서도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여성희생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영역을 환기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2차 가해자로 기능해온 남성적 권력 집단에 대해, 일상적 감시를 시작한 것의 의미를 지닌다.

특수전문집단 대상의 교육에서 한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정부부처 위탁교육 운영형태로 변화한 부분이다. 성폭력전문 상담원 교육이 특별법제정 이후 운영형태의 변화가 있었듯, 96년부터 행해져오던 성교육지도자 교육 또한 남녀차별금지법 실시이후 시도 교육청 직무연수형태로 운영되게 되었다. 이렇게 NGO 교육활동이 위탁 혹은 직무연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은, 시민운동 조직이 '정치사회 대의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교육 기능의 대행' 현상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교육이 성인지적 관점을 내재화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감수성을 찾지 않는 한, 반성폭력운동단위의 역할은 당분간 요구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 - 반성폭력 교육운동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본 상담소 활동을 중심으로 반성폭력 교육운동의 모습을 개괄해 보았다.

사회전반적으로 크게는 성폭력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성교육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성폭력 관련 교육들은 여성운동단체를 비롯하여 정부 출연기관, 학교, 복지관 등 점차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성폭력이라는 이슈가 일정정도 의제화 단계를 지나면서 관련이슈에 대한 논의의 공간이 넓어지고, 이에 대응하여 보다 다양한 진지들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반성폭력 이슈-사회적 공간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해진 교육 주체들 스스로가 '이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끊임없는 질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교육운동의 의미가 성폭력이라는 이슈 자체에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관점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내강간 불인정은 남성편향의 과소범죄화

조국 _ 서울대 법대 부교수, 법학박사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며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던 바, 이 판결은 한동안 잠잠하였던 가정 내 성폭력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남편은 당초 아내에 의해 강간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검찰수사 단계에서 강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남편은 법정에서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거짓말탐지기 테스트 결과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후 남편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이번 판결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혼인 유무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적으로는 법원이 2000년 이후 필자가 줄곧 주장해온 아내강간의 성립론을 채택하여 조그마한 기쁨을 느낀다. 2001년 여성개발원이 아내강간의 처벌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반발이 있었다.

통상 아내강간을 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1970년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은 사실 아내강간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학계의 통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아내강간은 성립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이 성립할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리고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서 강간죄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는 ‘친족에 의한 강간’을 처벌하면서도 ‘친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고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남편에게 ‘가정폭력특례법’ 상의 ‘보호처분’(제40조)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법률상의 처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교를 한 남편에게는 강간죄의 죄책을 애초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학계의 통설과 사회관념의 문제점을 차례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첫째, 아내강간 부정설은 민법상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동거의무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를 내포하는 것인데 어떻게 강간이 성립하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민법상의 동거의무에 강간수인(受忍)의무가 내포된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먼저 여성이 혼인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강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강간은 단지 거친 성교가 아니다. 강간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장기간의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모멸적·폭력적 행위이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혼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혼인 중의 성교에 대한 동의도 당연히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성교를 거부할 경우 혼인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강간이 아니라 이혼법정으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아내강간의 불성립의 근거로 혼인의 프라이버시를 거론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문제가 있다. 혼인증명서는 강간면허장이 아니며, 가정은 남편을 위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아내구타가 혼인의 프라이버시의 명분 아래 형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아내강간도 형법이 개입을 자제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실제 대부분의 아내강간은 정상적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강간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아내강간은 '형법의 보충성'(Subsidiarität des Strafrechts)의 원칙이 작동할 대상이 아니다. '혼인의 프라이버시'는 부부간의 동의에 의한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성적 폭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아내강간을 인정한 미국의 지도적 판결인 1984년 *People v. Liberta* 판결의 설시를 인용하자면,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구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혼인의 프라이버시에 호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프라이버시의 구실 아래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아내강간의 인정이 '가정파괴'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강간죄 기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간 그 자체에 의하여 깨져 버린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성교가 폭력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강요되어야하는 상황까지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면, 더 이상 그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리고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미국 또는 독일과는 달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의 선제적(先制的) 개입으로 혼인이 파탄나는 가능성은 봉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내를 강간한 남편을 즉각 형사처벌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면, **강간을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가정보호사건' (제9조)의 범위에 포괄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강간당한 아내는 각종의 '임시조치(제29조)로 보호하고, 남편에게는 형법 적용 이전에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감명령, ④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⑥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⑦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제40조)을 부과하도록 하고, 남편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제46조).


넷째, 수많은 합의에 의한 성교를 해온 부부사이에 강간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의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증의 곤란이 행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아내강간만이 아니라 혼인외의 여성에 대한 강간 역시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입증의 어려움이 크지만,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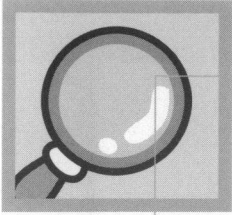
그리고 아내강간이 처벌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내들의 가짜 강간 고발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짜로 고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거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비판은 형법의 임무를 형사소송의 임무와 혼동하는 것이다.

다섯째,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통설은 1997년의 제33차 형법개정 이전의 독일 형법 제177조를 원용하고 있다. 당시 독일 형법의 이 조문은 강간죄 성립을 “혼인외 성교”(außerereicheher Beischlaf)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독일조차도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혼인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하였고, 이제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가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보다 중요하게는 “혼인의 성교”라는 문언이 애초에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론으로는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아내강간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영미권의 국가의 경우 ‘강간죄 개혁운동’ (Rape Law Reform Movement)의 결과 오래전에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음도 부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법의 기준에서 볼 때도 아내강간의 부정은 문제가 있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제2조 (a)는 아내강간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로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 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내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에서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아내강간의 불인정은 남성편향의 ‘과소’ 범죄화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정당한 입법이며, 현행법에 대한 해석론으로도 아무 장애가 없다고 본다. 요컨대, 아내강간의 부정설은 아내의 몸과 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의 산물로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아동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와 관련 정부부처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정책총괄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권고안의 배경과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요?

우리 위원회는 아동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공판과정에서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잘못 대응함으로써 정신적, 심리적인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여성부에 각각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법무부에는 수사·공판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피해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담당의사의 출석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담당의사 조사 시 참고인 서면진술서를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는 각 경찰서 별로 아동성폭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제반권리와 피해자 조력기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성부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긴급의료지원센터 및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인권위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계기와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요?

위원회가 2002년 5월 성폭력을 당한 15세 아동이 수사과정에서 인격적 모욕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3년 5월 아동성폭력피해자 부모모임으로부터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 가해자와의 대면·보복의 위협으로 생기는 공포감 등 수사, 공판 절차에서 느끼게 되는 압박감이 성인 피해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그로 인해 피해의 극복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성인에 비해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성폭력 범죄 신고율을 낮추거나 법적 해결방식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다는 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한 공정한 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되어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수사, 공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내부 논의와 외국사례 수집,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한 제소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3.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가요?

아동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아동이면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아동과 그 가족의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1989년 유엔총회에 의해 채택된 아동권리 협약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성폭력 피해는 불운한 개인의 피해이기 이전에 사회적 책임입니다. 히물며 그런 아동피해자가 피해의 조사과정에서 또 공판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다시 한번 피해를 입는 다면가 제도상의 미비로 피해의 극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관계기관의 본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대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갈 예정입니다.



싸우는 영혼, 변화하는 여성들

: 강간 문화에 도전하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자기 방어 훈련

키라 _ 이대 여성학과 석사수로, 호신가이드북 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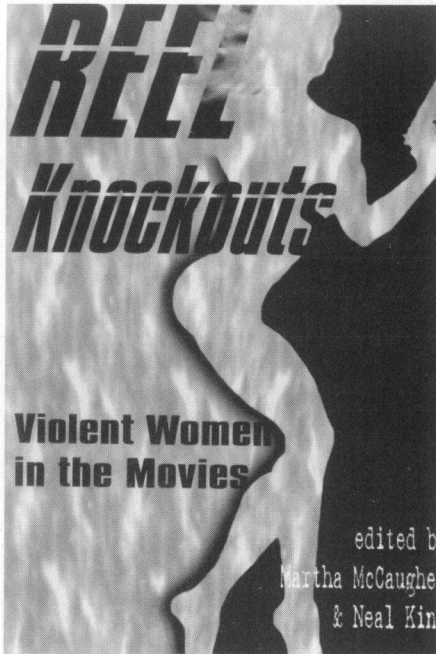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청소녀를 위한 으랏차차 호신 가이드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범죄의 쉬운 표적으로 인식되고, 성범죄가 범죄행위를 더욱 은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기화되기까지 하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호신 가이드북>은 여성은 무력하고 남성은 폭력적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고, 만연되어 있는 강간 문화를 여성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호신가이드북 팀에서는 Martha McCaughey의 『Real knock out : The Physical Feminism of Women's Self-Defense』를 함께 읽고, 여성의 공격성이 드러난 영화를 함께 보면서 “여성의 호신”을 정치적인 행동으로 담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나눔터 편집부

못된 여자(mean woman)는 ‘여자’ 답지 않은 여자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여자이다. 여자다운 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는 것,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겹겹이 내 몸에 부착되어 자연스럽기까지 한 수천 수만 가지 ‘여자다움’ 들에게 안녕을 고하고자 하는 결정이다. 특히 그러한 결정이 자기 자신의 ‘몸’을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할 때, 그 결정 과정과 함께 여성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혁명적이다. 사회적 규범이 여성을 (남성에 비해) 육체적으로 취약하다고 명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을 공격 할 준비가 된, 혹은 되고자 하는 여성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정은 고통스럽지만 즐겁고 짜릿하며 여성에게는 금지되어왔던 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만만하지 않은 여자, 공격적인 여자

마사 맥코이(Martha McCaughey)는 자신의 책 『Real knock out : The Physical Feminism of Women's Self-Defense』에서 자기 방어(Self-Defense) 개념을 소개하면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self-defender’가 된다는 것의 혁명적 의미를 설명한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자기 방어는 성폭력 위협 상황에서 ‘싫어. 안 돼라’는 의사 표시(No means No)를 명확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넘어, 위험 상황에서 육체적 방어와 공격으로 자신



의 안전을 확보하는 개념을 말한다. 여자가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눈을 부라리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자신을 불쾌하게 하거나, 목숨을 위협한 사람의 팔과 다리를 꺾는 여자, 가해자의 눈이나 성기와 같은 급소를 가격하고, 위급 상황을 위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하는 여자,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자를 위협할 수 있는 여자는 ‘만만하지 않는 여자’ 이고 ‘여자가 아닌 여자’ 혹은 ‘미친 여자, 공격적인 여자’ 이다.

저자는 다양한 자기 방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Model Mugging’에서 교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여성이 공격받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 여성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온 힘을 다해 공격하도록 연습시킨다. 싸움에서 여성의 힘을 키우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성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크기를 키우는 것, 즉 분노한 자신을 인정하고 그 분노를 애써 억누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때에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공격자를 위협하기 위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연습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여성은 동시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성’에 도전하도록 훈련된다. 즉 싸우면서 상대방이 다칠까봐 염려하지 않기, 욕설을 내뱉는 자신을 어색해하지 않기,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등을 훈련받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분노한 상황에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를 자신에게로만 향하는데 익숙한 여성들은, 자신의 몸으로 방어·공격 연습을 하며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강간 문화(rape culture)와 자기 방어(self-defence)

강간 문화란 성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를 말한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연화하는 기존의 성역할 구도는 강간 문화의 전제가 된다. 이는 남성의 성적 공격성과 여성의 성적 수동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며 그에 대한 여성의 거부나 거절은 병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 혹은 “공격적”인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의 힘과 여성의 약함이라는 신화에 기대어 수행되는 것이며, 여성의 공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부적절하다는 신화에 기반한 폭력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신화에 기반한 강간 문화는

우리의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적인 차원에서 자연적인 것·정상적인 것처럼 부착되는 것이기에 강간 문화는 우리의 몸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몸적 변화, 강간 신화 밖의 여성

마사 맥코이는 이렇듯 '몸으로 경험' 되고, '몸에 부착된' 가부장적 규범과 흔적들을 새로운 몸적 경험을 통해 변화시키기를 주장하며, 그 시도의 하나로서 '자기 방어'를 제안한다. 자기 방어는 '강간'을 '여성에 대한 침해'가 아닌 하나의 '싸움'으로 규정짓고 그 싸움에서의 역할-남성의 공격과 여성의 저항 불가-을 파괴시킨다. 강간 가해자를 공격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를 살해하는 여성은 이미 강간 신화의 밖에 존재하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기 방어는 이미 성별화된 언어들-젠더, '공격', '억압'-에 연관된 의미를 변화시키며, 이와 함께 '강간', '성폭력'의 의미 역시 변화시킨다. 이는 기존의 성차별적 사고들이 사실상 어떻게 '몸'의 기능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를 확고히 해왔는지를 드러내 준다.

따라서 자기 방어 훈련을 받는 여성은 훈련을 받게 된 계기나 다양한 개인차를 불문하고, 여성의 육체적 취약함과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된 젠더 문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전통적으로 '강간' 상황에서 여성은 두려움의 주체였지만, 자기 방어 훈련을 통해 변화된 여성의 몸은 강간 상황에서 여성을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자'로 위치시킨다. 저자는 이것이 '여성의 자기 방어 훈련'을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movement)으로 전이시키는 지점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자기 방어 이론에 대한 '피해자 유발론'의 혐의를 거부한다. 자기 방어가 성폭력의 상황에서 저항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죽을 때까지 저항하라"고 말하는 가부장적 명령과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경찰 수사과정과 재판부에서 말하는 저항의 유무는 여성의 몸을 남성의 몸과 "이미" 같은 것으로 상정한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말하는 자기 방어라는 개념은 여성이 남성의 공격에 반격가능하고 저항할 수 있다는 마음과 몸의 훈련이 되어야만 그러한 저항 자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간될 이번 호신 가이드북을 함께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 역시 위와 같은 적극적 의미의 자기 방어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소개하는 것보다, 몸을 사용하여 경험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격성'과 '못된 여자로서 사는 법'이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적절한 타인과의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좌담

마음 속 싸움의 크기를 키워라

호신대중강연을 오랜 기간 동안 해온 정경애 선생님과 호신가이드북 프로젝트팀인 호빵, 키라, 오매가 만나 “호신”이라는 개념과 행동에 대해 걱정스러운 점과 필요한 점들을 가지고 난상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성폭력 담론에서 “호신”이라는 개념이 오염되었다는 점을 짚어보고, 우리 마음속 싸움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좌담이었습니다.

- 나눔터 편집부

참가자: 경애, 키라, 오매, 호빵 / 대담정리: 오매

내 몸은 나의 것?

호빵: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치적인 구호이기도 한데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 자기 몸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권리는 지켜줄 수 없다는 피해자 유발론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경애: 우선은, 여성들이 자기 힘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사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키워져 온 게 대부분이죠. 육체적 물리적으로 보호받을 대상이었고, 그럴수록 몸과 더욱 멀어지고..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고 내가 야근 안하고 말지,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이래왔던 게 현실이었죠.

키라: 성폭력에 대한 이제까지의 얘기는 이미 생긴 피해를 어떻게 치유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되었잖아요. 그런데 피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사고의 전환 같아요.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실제로 내게 힘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겠어요.

오매: 호신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 유발론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저항이라는 게 여자가 강해야 한다, 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지 않나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가 어째서 멀쩡히 학교도 다니고 생활을 하냐고 묻는, 정조를 목숨보다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었지요.

키라: 피해자 유발론에 대한 걱정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여자 되기’ 라는 주제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매: 성폭력 현장에서 저항하자는 의미보다, 강해지자는 메시지였으면 해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적용되는 강해지기. 고정화된 피해자상 집어던지기 등등

호빵: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당위적인 구호가 있었는데, 이미 자기 것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것이 될 수 있을까?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 가이에 대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피해자 유발론 등 다른 말들에 막혀 구체화되거나 대중화 되지 못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성다움은 내 몸을 지키지 못해

호빵 : 이전에 호신 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키라 : 어떤 학교에 호신술 강의 있다는 말을 듣고 웃었었죠. 글을 쓰거나 여성학을 공부하거나 문화제를 하거나 좋은 방법 많은데 굳이 왜 신체를 이용하는 열등한(?) 방법, 개개 여성이 힘을 키워서 하는 그런 어렵고 지난한 방법을 쓰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키라 : 대학 들어가서 남자애들한테 지기 싫어서 무거운 거 나서서 들고 그랬는데, 고학년 되면서 왜 굳이 이래야 하지? 재밌지도 않고 부질없어지고.. 또 여성스러운 주위 친구들을 보면서 나만 그 세계에서 배제되는 느낌, 내 친구들이 받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아니다 싶었죠.

호빵 : 어렸을 때 엄마가 오빠는 태권도 나는 피아노를 시켰는데 오빠랑 서로 바꾸기로 했어요. 학교 끝나면 악보랑 도복을 바꿔 들고 갔죠. 그런데 제가 잘하는, 재능 있는 애였던 거예요. 20명 정도 되는 시범단에 여자애로는 처음 들어가서 제일 앞에서 시범 보이고 아주 신났죠. 동네 돌면서 태권도장 광고도 하곤 했으니까 엄마가 알게 됐어요. 엄청 혼나고 맞았는데.. 이상하게 태권도 배우기 전과는 맞는 느낌이 달라요.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달까.

소꿉 친구들이랑 매년하던 팔씨름 대회에서도 내가 항상 1등을 했는데, 4학년 때부터는 1등을 못하게 된 거예요. 남자만큼 강하지는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를 잃고 관뒀어요. 하지만 강하다는 게 남자애들이랑 똑같아 지는 게 아니란 거, 맞았을 때 기분이 달라지고 대련이 무서워지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강한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 순간 좌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매 : 농활 갔을 때 일을 참 잘했어요. 체력 강하고 일도 잘 배우고. 칭찬 받는 것도 좋았고 무리까지 하면서 힘을 쓰곤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강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게 결코 공격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냥 힘센 여자애였을 뿐. 어찌면 신체가 기골장대한 사람이 자기를 어쩔 수 없이(?) 긍정하게 되는 상황이거나 또 다른 강박이었을 지도 모르겠어요.

경애 : 난 남자애들 이기면서 살아온 케이스인데.. 이상하게 싸움을 잘하는 거였죠. 골목대장이었는데 옆 동네 대장들이 싸우러 오고, 또 이기고 나름대로 진주를 평정했죠. (웃음).. 중고등학교때 계속 무술 연마했고 도장에서 하루에 15명쯤 대련했으니까 남자애들한테 치인다는 생각 전혀 못해봤어요. 근데 난 특이한 여자였던 거죠. 아니 오히려 여자라기보다는 남자쪽에 가깝다고 취급되었던 거죠.

호빵 : 그러고보니 초등학교 5, 6학년 때 꽤 인기가 많았는데 나를 좋아했던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약한 애들이었어요. 나는 내가 여자인데 왜 애네들을 보호해줘야 하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심하라는 얘기만 들었지 어떻게 조심하라는 말도 못듣다가, 그 중에서 운동과 권법 등을 경험한다고 해도 남자보다 못하다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운 좋게 자기 몸에 대한 긍정까지는 나간다고 해도 반격으로는 못 나가고, 또 공격적이 되면 바로 여자도 아니라고 배제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키라 : 성별 틀에서 배제시키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농담문화, “애는 여자도 아니야” 등등. 여자하면 얼

마나 우스워지는지 알게 되니까 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몸으로 공격하는 거 못하게 되고 그런 걸 불편하다고 느끼고.

오매 : 그 때 배제되지 않고 반대로 보호(?) 당하는 여자들의 마음이 궁금해요. 남자들이 기골장대한 여자들을 배제시키는 걸 보면서 기골장대하지 않은 여자들은 강한 여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호빵 : 세계 보디빌더 1등한 여자 얘기가 방송에 나왔었는데, 근육이 예쁘지 않게 될까봐 하는 공포가 있네요. 여자 보디빌더에게 요구되는 건 근육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예쁘게 잡혀 있는가인거죠. 여자와 폭력, 폭력적인 여자에 대한 인상 어때요? 폭력적인(?) 스킨십을 하는 여자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비난 받기도 하고, 그럼 움찔하게 되고, 폭력적이라고 명명된 사람은 또 어떤 기분이 드는지? 호신이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도 불편함이 있는 듯 한데요.

경애 : 나는 점점 안하게 됐는데, 여자들 사이에서 폭력적으로 취급되는 게 불편했죠.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면 안해야지, 그런 식의 친근감은 싫어하는 구나... 생각했죠.

호빵 : 남자애들이 싸우는 건 적어도 그들의 세계거나, 멋있다 보기까지 하는데. 멋진 여자는 강한 여자라는 이미지는 거의 없는 듯. 자기 단련까지만 멋져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반격으로 나타났을 때는 아니게 되는. 또 영화 속 그런 캐릭터로 나온 배우들은 레즈비언, 양성애자 소문에 시달려요. 기존 이성애 여자는 아닌 거죠.

키라 : 말괄량이 길들이기 식 있잖아요. 결국 마지막에서 로맨스로 빠지며 여자가 된다는 식.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성애 제도에서의 여자로 취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여자는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깨트려라!

호빵 : 지금까지 예방 차원이라면 기껏해서 '노' 라고 말해라! 수준이었는데,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펼쳤던 경애언니의 경우는? 대학 호신술 강의 나갔을 때 등 얘기해 주세요.

경애 : 새롭고 신기해하죠. 우리 몸이 가진 힘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중학생 정도의 힘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다는 말하면 눈이 반짝반짝하죠. 사회적으로 주입된 게 많아서 실제 상황에서 과도하게 공포에 떠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 언급할 수도 없었던 남자의 고환이 얼마나 취약한지, 내 무릎뼈가 돌덩이 보다 더 딱딱한지 알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위기 감지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생기죠.

오매 : 대련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남자애들이 강하다는 전제를 되풀이하게 되잖아요. 남자애들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적 수단이 없는 여자들도 취할 수 있는 전략 같은거요.

호빵 : 남자애들의 공격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서 문제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나한테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에는 우스워한다고 해결될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여성이 쉬운 표적이라는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보다 강하지 않다는 불안이 남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훈련을 하면 나아질 문제일까 하는..

경애 : 훈련하면 달라진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성폭력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반격하는 훌륭한 케이스

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들 이런 거 배우는 문화가 형성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예요. 어떤 호신술에서도 기본이잖아요. 선부른 공격을 말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해요. 무기를 들고 있다거나 두 세 명이 있는 경우 공격하는 게 바보죠. 그렇지만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거는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호빵: 맞아요. 공포가 확장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데, 어떤 게 생명의 위협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폭력이 아니라 방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방어의 기본은 자기 몸을 지키는 것” 이런 말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저항해라, 폭력과 여자 안 어울린다, 나쁜 거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아자!

오매: 자기 방어술을 최고로 연마한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포기하라고 알려주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연마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여자들의 무용담이라는 게 다양한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스위 해서 쫓은 사례, 욕해줘서 쫓은 사례, 싸우다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라” 했다는 얘기.. 몸을 단련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응’이라는 게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강해짐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게 필요해요.

키라: 개인적으로 내 몸을 단련하는 수준에서만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강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이 강해지지 못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내 몸을 단련하는 게 즐거울 수 있고, 남자들의 욕망과는 또 다른 그런 욕망을 함께 나눌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호빵: 남자애들한테 피아노 가르치고 여자애들은 태권도 가르쳐야 해요. (웃음) 남자애들은 어쨌든 체육 시간, 일상체육, 군대 등 전 생애에 걸쳐 훈련 받잖아요. 여자애들에게도 체육시간 배정하라는 운동이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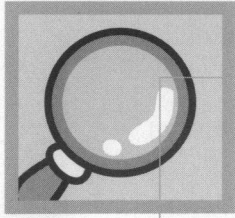
키라: 여자들도 어렸을 때부터 격렬한 스포츠를 했으면 좋겠어요. 축구나 레슬링 같은.. 넘어지거나 명들거나 굼혀도 괜찮다 툭툭 털고, 땀냄새에도 익숙해지는..

경애: 내 몸에 함부로 하는 사람은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여자들은 흔히 거기까지는 부분에서 몹시 헛갈려 하잖아요, 오래 걸리죠. 공격이라고 즉각 인식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죠. 어, 기분 나쁘네! 네가 뭘데 나를 왜 기분 나쁘게 해?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호빵: 정말 그렇네요. 상대가 “왜” 그러는지가 결코 중요하지 않은데.. 기분 나빠! 내가 이런 취급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잖아! 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말만으로도 느낌이 오네요.

키라: 기분 나빴을 때 실제 액션을 취하려면 연습이 중요해요. 시뮬레이션 훈련 꼭 많이 해보아야 하는 거죠.

아자! 



SBS 보도

취재 / 제작의 인권보호 7대 지침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과정과 진료과정,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2차 피해의 고통을 겪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사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인터뷰를 해야지만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리하게 피해자와 인터뷰를 시도하고,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SBS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어 2차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내부 반성으로 지난 9월 22일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7대 지침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시청자위원회 SBS 심의팀 노영환씨와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 보도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눔터 편집부

보도취재 제작의 인권보호에 관한 7대 지침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권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취재 제작의 근간으로 삼아 다음과 7대 지침을 준수한다.

1. 모든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공인을 제외한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익명 보도의 원칙에 따라 실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3. 미성년 형사사건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와 보도를 하지 않는다.
4. 일반인의 초상과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고,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5. 형사 피의자나 일반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취재방식을 지양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6. 성차별을 나타내는 표현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질병명 등 인권침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7.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정정보도 또는 후속보도를 실시해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동안 본 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보도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같이 구체적인 실무지침이 발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음성변조 혹은 화면변조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인권침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이 없는 등 이 실무지침에도 아쉬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들이 제정된 것을 근거로 보도기자들이 인터뷰를 무리하게 요청하거나,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을 때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항의를 하는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 -왜 자꾸 무죄라고 하나

상담 인권국

피해자가 1, 2급 정신지체 장애인임에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최근만 하더라도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아래의 판결요지를 보면, 상황판단과 위기대처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15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운 판사) - 정신지체1급 장애청소년(17세)을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69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저능이기는 하나 7-8세 정도의 지능은 있었고, 평소 마을 어귀에 있는 요트경기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등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도 충분히 있으며, (중략)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옷을 벗으라고 한 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나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04년 4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 - 정신지체2급 장애청소년(14~18세)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51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

: “0양의 경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등 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낙태의 의미도 아는 등 성교육에 대해 이해 능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0씨가 0양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서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강간,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94년 제정당시 신체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이었다가 97년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간음등' 으로 바뀐 것입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조항을 특별히 규정한 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규정은 형법보다 형량을 가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갖는 핵심적인 의미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형법상 준강간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니는 취약한 특수성 고려하여 관련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판례들에서는 이 조항의 '항거불능' 이라는 부분을 장애에 대한 이해없이 적용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의 판례들은,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에 대한 해석에 있어, 장애자체를 피해자가 지닌 취약한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와 '항거불능' 을 별도의 요건으로 보고 이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항거불능의 정도에 대해서도 비장애인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 와 '항거불능' 을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본다면, 기존 형법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으로, 애초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었던 것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사건을 주되게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불합리한 독소조항으로 보며, 장애자체가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조문에서 항거불능이라는 단서를 삭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 장애를 지닌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고 반영되기 위해서는, 잘못 적용될 우려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흡한 법조문의 문제뿐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다수가, 비장애 남성중심의 시각을 갖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 역시 큰 문제입니다. 해당조문의 개정과 함께 수사·공판담당자에 대한 관련 교육 역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상담현장 Q & A

상담원으로서 성폭력피해상담을 받을 때,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한 정보를 구할 때 생존자로서 법률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을 때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짚어보는 페이지입니다.

Q

고소후 재판 진행중입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가해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검사는 특별히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사건 당사자인데, 가해자에게 질문하거나 반박할 수는 없는지. 검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A

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와의 정해진 소통통로가 없거나 공판에서 사건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느낌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소송당사자는 아니며 소송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뿐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대리해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지만,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의견을 전할 수 있고 재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는 있지만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제3자인 증인의 지위에서 가능하며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때마다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공판검사를 만나는 것조차 힘든 상황들도 있는데(어떤 사건의 경우는, 같은 법정에서 여러 사건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음사건까지 기다리다 어렵게 검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담당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으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법관기피신청을 하는 등 소송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언·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ns.voc

김김보연의 카툰

김김보연은 본 상담소 성과인턴팀 활동가입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상담소를 환히 비춰주는

강영순 선생님

상담팀 _ 어린



밝은 미소가 빛나는 아름다운 인상의 선생님.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담소의 일상에서 강영순 선생님과

특별한 인터뷰는 가슴 깊이 새겨질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좀더 편한 의자에 앉으라며 자신이 앉으셨던 의자를 내어 주시는 선생님의 배려심에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면서 따뜻하고 정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 항상 웃는 얼굴이다. 그래서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진달까. 또 남에 대한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다.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심이 그대로 묻어난다.(웃음)

원래 웃음이 많은 편이다. 타고난 천성이라기보다 스스로 노력한 편이다. 어려서 아버지가 무척 엄격하신 편인데다가, 조금은 삭막하게 느껴지는 가족 환경이었기 때문에(웃음)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러면서 착한 딸,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것 같다. 또 갈등이나 싸움을 싫어했기 때문에 친구들과라도 싸움 한번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보다는 어른들이 원하는 데로, 주변에 맞추어서 배려를 많이 하게 된 것이다.

☞ 상담원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그러다 서른 중반에 속에서 뭔가가 올라왔다. 지금까지 남에게만 집중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좋아해서 한 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열심히 살아 왔지만, 정작 내 자신이 좋아서 했던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역할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좋아야 하겠다는 깨달음이 들었다.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고, 정말 재미있었다.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신을 더욱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하다보니 공부로만 그칠 게 아니라 상담을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아는 분이 성폭력 상담 교육을 듣는다고 하여 함께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아 상담원 활동까지 이어진 것이다.

☞ 우와. 서른 중반의 깨달음이 지금의 선생님의 모습을 만들었다니 대단하게 느껴진다. 변화는 가만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정말 선생님 스스로에게는 하나의 혁명이 아니었을 까 싶을 정도다.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때 이후로 지금까지 7년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웃음) 반항도 많이 하고, 이제 갈등도 여유 있게 생각한다. 이런 내 모습을 남편이 신기하게 여길 정도였다.

☞ 그런 변화에 대해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

처음에는 부정적이기도 했다. 친정 식구들은 잘 지내던 애가 왜 저러나 그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요즘은 무척 많이 변

화했다. 특히 아들은 엄마가 생각도 말하고 하니 좋다고 하고, 남편도 훨씬 좋아보인다고 환영해 주었다.

 무척 좋아 보이신다.

이제는 안과 밖에 통합 된 듯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내 스스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웃고 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결국 배려라는 것도 우선은 내가 있고 나서 인 것 아닌가. 내 그릇도 채우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챙길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겁이 많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혼자서는 비디오 대여점에도 안갈 정도 였는데, 이제는 부딪히고 보자는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변하니까 주변도 많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역동이 아닐까. 딱딱하기만 하셨던 아버지마저도 나의 모습에 많은 영향을 받으신 듯 하다. 이제 화날 정도로 희생은 안한다. 기준이 생겼다. 배려도 나에게 여력이 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나를 채우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먼저 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나를 채우면 저절로 배려든 웃음이든 나오겠지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의 꿈

꿈이 있다. 현재 모레 놀이 치료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집에 모레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모레 놀이를 하면서 상담할 수 있으면 한다. 공부를 해보니 무척 재미있는 영역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알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곁에서 그것을 찾아가도록 도움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놀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다.

 상담원 활동이 주는 의미

상담은 일방적으로 주는 봉사나 나눔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류라고 생각한다. 상담 속에서 받는 게 없지 않다. 오히려 내 스스로 더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일깨워 준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고생도 별로 안하고, 누리고, 받고, 혜택 받으며 살아온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 여력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한주에 한번 활동을 하고 계신 데, 일상생활(아이들 등)과 병행하는 건 어떠신지?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특별히 불편을 가져온 것은 없다. 오히려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아이에게도 이런 활동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엄마로서 매일 챙겨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하도록 하니깐 더 잘 성장하는 것 같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주제가 있는지?

어린시절의 성폭력으로 인해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성인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이 간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안고 혼자 힘들어했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랜 시간 쌓여온 이야기니까 내가 잘 들어주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내담자가 상담을 해오면 상담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다. 시간이 길다고 슈퍼비전 때 지적 받기도 하지만...(웃음)

면접상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내담자가 오지 않아서 그친 경우가 있는데, 자주 생각이 난다. 아쉬움은 있지만, 상담에 오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잘 살았으면 하고 기도를 하거나, 좋은 기운을 보낸다. 지금까지처럼 곳곳이 잘 살아낼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좀더 성장해 있길 바란다고 생각한다.

 상담활동을 하다보면 상담 중 쌓인 감정을 털어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럴 때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잘 웃는 만큼 잘 털어버리는 편이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정하는 편이다. 그래서 특별히 쌓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힘든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조심한다. 예전에 책에서 마치 부적처럼 나무에 무언가를 걸어두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착안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하러 올 때 들어갈 때 현관의 나무를 쳐다본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다.

 상담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 받는 순간은?

가정생활 끝에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꼈다. 그 때처럼 상담소에 오면 뭔가 활기를 느낀다. 처음에는 다들 일도 잘하고, 바빠보여서 말 걸기도 어려웠다. 그러면서 위축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1년이 지나보니 많이 편해졌다. 젊은 활동가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이고, 보기 좋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주고받는 듯한 교류감이 있으니까 힘이 된다.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좋은 선물이 또 있을까.

 생존자들 혹은 상담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왔다 게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그리고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고 싶다. 또 상담소 활동가들은 꼭 필요해서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유쾌한 일도, 편안한 일도 아닌데,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고맙고,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인터뷰를 마치며, 선생님의 환한 미소 속에 담긴 불꽃이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틀을 깨고, 생존자들,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에게 다가서신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겸손하게 깃든 성실함이 오래오래 마음이 남을 것 같다. 짧은 지면에 다 담지 못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쉽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미소 속에 숨어 있던 내면의 힘 선생님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선생님과 오래오래 연대감과 자매애를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길 기원해 본다.

2차 피해 없는 의료인, 법조인 되기 사업을 진행하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는 부산여성회 산하에서 1992년 7월에 개소하였으며, 1995년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는 법조인, 의료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여 지영경 사무국장과 전화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나눔터 편집부

2차적 성폭력 없는 세상,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병원!



나눔터 : 진료과정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등의 인권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부산에서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성폭력상담소(이하 부산성폭) : 우선 상담소에 내방하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수사과정에서는 보통 초동 수사때 가해자처럼 취급받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퍼붓는데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분들도 있었구요. 진료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거부였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거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정액 채취에 실패해서 고소를 포기한 피해자 분들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과 법조인의 의식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조인들에게는 변호사에는 피해자 권리를 적어놓은 인권지침서를 보냈고, 검사와 판사에게는 2차 피해에 대해 항의하는 엽서 쓰기 등을 했습니다. 의료인들에게는 지난 2004년 9월 20일에 산부인과와 정신과 의사들과 함께 의료인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의료지침서를 배부하고, 2차 피해 없는 병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간판을 제작하여 총 10여개의 병원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나눔터 : 엽서와 간판 등은 의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조인과 의료인들의 반응들이 어땠는지요? 10여개의 병원에 간판을 달게 하는 일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 같습니다.

부산성폭 : 엽서에 대한 반응은 특별히 기억나는게 없고,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섭외할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판매원 취급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분들도 있었고, 간판까지 다는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구요. 하지만 나중에는 취지에 동감해주는 분들이 늘고, 그 분들이 성폭력 연계병원으로 지정하는 것 까지 연계가 이어지기도 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터 : 앞으로 활동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부산성폭 : 11월에는 2차 성폭력 피해에 관한 지난 활동을 점검하는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캠페인 방식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들이 병원과 경찰, 법원 등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고,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女樂 여악여락 女樂

2000년대를 대표할
위대한 여성가수를 찾아라!

파격의 시대 위대한 여성가수들

67년,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항에서 내린
자유와 파격의 위대한 여성가수
윤. 복. 희

70년대 한국의 멜라니 샤프카
80년대 한국의 제니스 조플린으로 불린 그녀
마력의 목소리로 영혼을 빨아들이는 카리스마
한. 영.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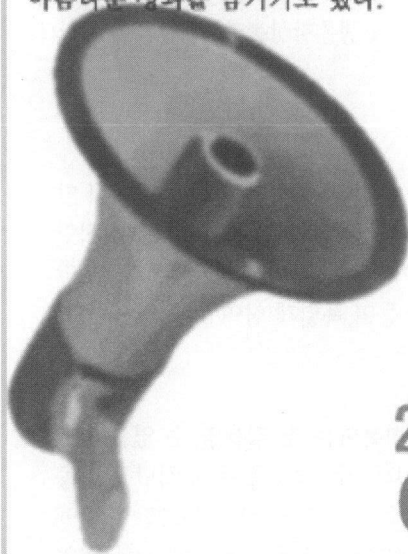
88년 브라운관 스타에서
90년대 고요한 시인이자 음악감독
으로 변신한 이. 상. 은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02-338-2890 <http://www.yeorock.com>

여악여락

릴리스 페어(Lilith Fair)
 여성뮤지션의 연대로 만들어진 여성들의 축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여성 아티스트들이 주축이 되어
 열렸던 락 페스티벌.
 여자들만, 그것도 비주류
 에 가까운 뮤지션들을
 앞세워 흥행이 되겠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3년간 2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또한 릴리스 페어의 수익금(700만 달러)을
 여성을 위해 활동하는 NGO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한국의 릴리스 페어, 여악여락

2000년,

한국의 릴리스 페어를 꿈꾸며

최초로 열린 여성 음악 페스티벌

여악여락을 기억하십니까?

2004년 여악여락은

여성뮤지션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모아

다시 한번 '위대한 무대' 를





만들어 내려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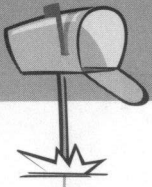
2004년 11월 26일 금요일 7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이 행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10주년 기념행사로서
 수익금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
 를 위해 사용됩니다.

女樂女樂

협찬 : MCM   후원  SBS  MBC KBS 여성부

“이제 살아 들어니 나는 맞았다!”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작년 11월, 잊지 못할 감동과 열대감으로 이루어진 1회 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 참여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기우였을 만큼 자리가 모자라 더 신청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올해는 꼭 만나뵙길 바랍니다.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피해를 유발했다는 식의 비난과 사회적 약자로 전락되는 문제 등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약한 존재로 치부하게 만든다. 그러나 많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사회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나온 생존자로 인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피해자를 생존자로 명명하고,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부각시키는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된 상을 극복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해결의 주체로서의 생존자상을 함께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생존자 말하기 대회란?”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의 피해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함으로써 지지와 격려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받는 ‘집단적 치유의 장’입니다. 직접적인 말하기 외에도 퍼포먼스, 연극, 음악 등 다양한 표현형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피해 생존자 뿐 만 아니라 주변인(가족, 친구, 사건 지원자),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사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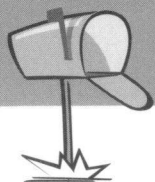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만들어 내는 의미들”

생존자들의 말하기 자체가 생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자신을 회복하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생존자들과의 만남 속에 서로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위로하는 경험을 통해 집단적인 공동체감과 일체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입 다물도록 하는 부당한 사회에 대항하여 생존자가 스스로 힘 있게 발화하고, 경험을 알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적극적인 도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인들에게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치유를 향해 한 발 나아가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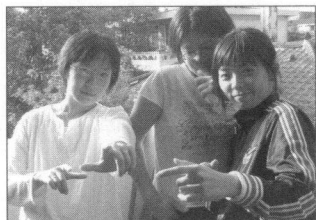
“다른 생존자를 만나고, 서로의 힘을 북돋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이 기다립니다. 생존자에게는 말하는 힘을 키우게 하고, 지지자에게는 잘 듣고, 공감하는 법을 느끼게 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언제 : 12월 초(성폭력 추방 주간 내)
- 어디서 : 비공개인 거 아시죠?(생존자들의 안전을 위해 참가자에게만 공지 됩니다.)
- 말하기 참여자와 함께 할 예정 : 말하기를 돕는 워크샵(11월 초), 사전모임(3회)
- 참가자 모집 : 메일이나 전화, 팩스 신청. 미리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 담당자 : 여성주의 상담팀 어린(김양영희) Tel. 02)338-2890~2

2004 프로젝트 팀



으랏차차 호신 가이드북과 청소년을 위한 비디오 제작팀



청소년을 위한 호신 가이드북과 비디오 제작을 위해 몽친 키라, 효효, 노미, 오매.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정말 필요한 가이드북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를 끙끙대며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욕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을 깨기 위해 합기도를 배우고 있는 키라, 무술소녀 체육소녀라는 별칭이 너무 잘 어울리는 효효, 기골장대한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재치만점으로 팀을 끌어가 는 오매, 비디오제작이라는 새로운 일이 부담되지만 신나게 일하고 있는 가람. 옷차림으로 모두를 압도하는 노미, 그리고 상담소 활동가로는 변혜정샘과 호빵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상담 - 성폭력 사건 지원자 매뉴얼팀


각각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고민들을 풀어내고,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다음 걸음을 내딛기 위해 “성폭력 사건 지원자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KBS 강철구 사건 지원자였던 시타와, 서울대 Y사건 지원자였던 동전, 연세대 B강사 사건 지원자였던 여량, 그리고 상담소 활동가로는 다미, 돌, 해갈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악여락 - 한국의 릴리스 페어를 꿈꾼다.



2000년 한국최초의 여성음악인축제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던 여악여락이 2004년, 상담소에서 다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티미스코리아대회, 한국의 페미니스트 가수 안혜경과 지현의 콘서트 등을 기획했던 짱가와 상담소의 여명이 공동기획이며, 재정팀에는 여간과 모모, 홍보팀에는 거북과 호빵, 기획팀에는 히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악여락>은 열림터 10주년 기념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여악여락>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합니다.

‘들어라 세상아! 나는 말한다.’-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기획단

성폭력생존자 혹은 지원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총 열 다섯 명(날, 누에, 유키, 해갈, 푸하, 거북, 찬이, 방페, 통통, 어린, 우드, 두나, 해리, 어진, 수)의 사람들이 모여, 벌써부터 숨을 고르며 12월 초에 있을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향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과 함께 작년 말하기 대회에 참여했던 생존자들이 역시 다시 기획단으로 참여 해 자신이 받았던 치유의 힘, 기운을 나누고자 해 더욱 뜻 깊게 느껴집니다. 1회에 말하기 대회에 이어 또 한번의 감동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격려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말하기 대회 기획단 화이팅! 



회원소모임 동정 - 시끌벅적 재미나는 회원소모임을 소개합니다.



반성폭력 세미나 1기 모임

성폭력에 관심이 있었지만, 성폭력피해생존자를 돕고 싶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 내심 두려웠던 마음을 깨고 세미나 소모임에 문을 두드린지 벌써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나이 차이도 나고 몸의 체형이 다른 10명의 여자들이 대화를 시작하여 기존 텍스트 중심의 딱딱했던 세미나 모임과 다르게 개인의 삶속에서 묻어나는 경험을 나누고, 이를 통해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여성'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다양한 여성 현실을 드러내 차이를 허용하고 공존하려는 시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와 공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이 힘은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 속에서 여성의 고통과 행복 그리고 그 치유방안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고 토론해 보고 싶은 회원분들 '치유소모임'에 노크해주세요. (모모)



반성폭력 세미나 2기 모임

'나'의 이야기, 기억하기! 치유하기! 의식화하기!
2004년 8월 21일, 드디어 성폭력피해생존자를 돕기 위한 2기 소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모임도 1기 모임 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첫 모임에서 모임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다들 동의한 것이 '생존자를 돕기 위한 모임'은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이 땅의 여성으로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구조적인 폭력상황을 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가는 '힘모으기' 모임이라는 것이랍니다. 그 과정 속에 '여성학 책' 속의 말을 듣고 함께 들은 사람들과 각자가 이해한 내용 혹은 반론을 맘껏 나누는 열린 대화의 장이 바로 2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야기 나눌 상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요 ~*** (반쪽이)



여성영화감상 소모임

영화를 통해 여성의 삶, 사랑, 폭력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해볼 수 공간입니다! 그동안 관심 있는 회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여 '섹스 앤 시티', '베터 덴 섹스', '프리다',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 '도그빌' 등을 보았구요, 그때 그때 주제를 정해서 다음 영화를 같이 선정합니다. 같은 영화라도 여성이라는 공통주제로 바라보는 영화감상은 한층 색다르고 흥미로웠습니다. 한 예로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를 같이 본 사람들은 자신

의 성정체성, 성욕구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평소에는 나누기 힘든 이야기도 이 공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추천할 만한 점이 아닌가 하는데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놓는 것, 멋지지 않나요? 누구나 부담없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여성문제, 여성의 삶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문을 두드려주세요~ 한 번의 시도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선)



등산소모임


한 달에 한번 메일 소식지 구성에서 동참을 호소하는 광고, 신규회원안내 자료집에 매달려있는 반장짜리 꼬실곰, 상담소 화장실 게시판을 한 달 동안 뽀뽀스레 점령하고 있는 사진 첨부 광고지, 몇 회원 분들에게는 불청객처럼 들이닥치는 문자메세지, 심지어는 등산모임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도착해 있는 스팸스러운 공지 메일까지. 그렇습니다! 성폭력 뿌리뽑는 그 날까지 여러 회원님과 상근자들 모두 함께 웰빙하고자, 아니 아름답게 살아남고자(혹혹) 등산모임은 오늘도 내일도 꼬시고 또 꼬십니다. 갑시다! 산으로~

회원모임 동정을 써달라는 부탁을 듣고 "우리를 동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대꾸할 만큼 그간 다소간의 소수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등산모임 지기에게 지난 9월 모임은 감격의 도가니 탕이었습니다. 자그마치 여덟 명의 일행은 가락가락 내리는 비에 우산을 나눠 쓰고 기차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즉석에서 바깥행선지, 해가 진 후 도착한 치악산 - 여러모로 어처구니없는 여행이었지만 빗소리 들으며, 소나무 내음 맡으며 먹고 마시던 감자전, 철쭉꽃술(?)은 얼마나 달던지요. 치악산 주차장에서 내달리던 얼음땀 놀이, 지선선생님의 부상 쿠당! 버스에서 민폐 끼치며 불렀던 노래들, 돌아오는 열차 안 맥주 한 모금! 아 아악 이건 등산모임이 아니라 괴이쩍은 비오는 날 특집 기차여행이었던가요?!

10월엔 서울 시내 꽤 높은 봉우리에 제대로 오르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원주에서 즐거웠던 분들도, 후일담에 입맛을 다셨던 워커홀릭 상근자들도, 맛있는 저녁 식사를 쏘실 의향이신지 안 내할 의향이신지 여든 의기투합하신 상담원 선생님도 - 그리고 산을 사랑하고 상담소를 사랑하시는 모든 회원여러분!! 10월 산행 함께해요, 가을 산 함께 올라요 ♡ (오매)

- 10월 산행 어디로 : 도봉산(등산 코스 미정)
- 언제 : 10월 17일 일요일 오전
- 문의 : 오매 010-2229-0073





미담 릴레이

미담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 상담소 업무이지만 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희도 많이 힘이 납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이런 마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나눔터 편집부

여성들의 밤길을 되찾기 위한 <달빛 시위>가 지난 8월 13일 열린 후, 한 통의 편지와 야쿠르트 1 박스가 상담소에 도착했습니다. (주) 한국야쿠르트 강서지점장 신용진씨가 보낸 편지글을 인용해 보면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여성에게 밤길을 돌려주세요’ 라는 기사를 읽고 가슴속에서 뭉클한 심정이 올라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창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에게 행해졌던 파렴치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저 역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 ‘달빛시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해간다면 머지 않아 큰 성과를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일단은 저부터 변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성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활동 및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귀 상담소의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소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보리출판사의 남우희 선생님과 본 상담소 소장 이미경 등이 공동으로 번역하는 <our bodies, our selves> 때문에 인연을 맺게되었고, 이후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의 삶을 출판하고 싶어할 때 출판자문위원으로서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열림터에 있는 진이는 전부터 이빨이 아파서 고생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빨치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의료비 지원 등을 알아보려 열림터 상근자와 함께 마포구청으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청에 기부처를 알아보려 왔던 익명의 독지가와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되어서 300만원을 기부해 주셔서 당일에 바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도 상황 이야기를 듣고 의료비를 절반 가까이 할인해주셨습니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일박스와 수삼과 더덕, 매실즙 그리고 직원모임에서 걷어서 보내주신 100만원 까지... 추석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상담소와 열림터, 하담에 따뜻한 정을 담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끼없이 주는 나무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

곽윤이 김경림 김무형 김미영 김성일 김 수 김정민 김혜승 김혜진 메 사 박남원 박미라 박상규 박정란 손명화 신아령 신유미 신윤진 안연하 양계성 오승이 유경희 윤은소 이경란 이소희 이윤옥 이정자 장미소 조 은 조혜옥 최석우 최은영 최진아 최현무 황영희

2004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남식 강득록 강수연 강영순 강인화 강정옥 강현정 강형구 계경문 고계영 고금이 고미경 고정남 고진규 곽윤이 구나은 권김현영 권순남 권주희 권혁건 권혜수 금철영 김종성 김강자 김경림 김경선 김경옥 김경진 김경현 김경희 김광진 김군자 김금란 김남수진 김덕현 김동령 김동희 김두나 김들순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숙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민규 김민성 김병숙 김보연 김사라 김삼화 김상미 김선미 김선민 김선애 김선애2 김선주 김성득 김상신 김성일 김성천 김소영 김소연 김수 김순옥 김순자 김순형 김양지 김언정 김엘림 김연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서 김영애 김영정 김옥선 김용란 김용자 김원식 김윤경 김은경 김은미 김웅진 김의창 김일륜 김재원 김정이 김주희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2 김지윤 김지혜 김진만 김진희 김진희 김태경 김하연 김학실 김한선혜 김혜경 김혜란 김현수 김현정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2 김혜련 김혜숙 김혜승 김혜정 김혜정2 김혜진 김화영 김효선 김희경 나길회 남김유진 남순열 남우희 남정현 남현미 노미선 노미순 노주희 도순아 류수진 류인경 맹주현 메사 문강진 문효진 민현경 박남원 박내현 박미경 박미라 박미숙 박미향 박보영 박상규 박선희 박성근 박소라 박소연 박소영 박소복 박신옥 박윤미 박윤숙 박정미희 박정란 박정옥 박정희 박종선 박준면 박지영 박지현 박진성 박진숙 박진숙2 박창은 박현규 박현주 박혜영 박혜진 방상희 배은경 배희진 변계희 상목스님 서명선 서미현 서민자 서백영희 서성준 서순진 서용완 서정표 서태자 설연자 설연자 성지은 손명숙 손수경 손이전 손종성 송미옥 송수영 송영훈 신동현 신상숙 신상호 신선애 신숙희 신아령 신유미 신윤진 신은주 신정혜 신희경 심수희 심용선 심혜련 SUNS (싱글여성모임) 안경희 안민 안연하 안재훈 안철민 안형윤 양애경 양연주 양영희 양재부 양효준 여라 엄경출 엄인숙 여영자 오세희 오숙희 오유지 오은순 오정진 오정현 오태형 오희선 오혁옥 옥민영 우안녕 원민혜 원순경 원형섭 유경숙 유경희 유성혜 유숙영 유은주 유인숙 유현광 육향순 윤명화 윤소정

윤수현 윤애리 윤양현 윤연숙 윤영란 윤정희 윤지원 윤지희 윤형훈 이경로 이경미 이경애 이경애2 이경애 이경은 이경환 이고운 이규화 이근혜 이나미 이내화 이명숙 이명자 이미정 이민영 이민희 이백수 이상근 이상미 이상은 이새롬 이석민 이선숙 이성수 이성제 이소림 이소영 이소희 이수명 이수자 이순순 이애란 이어진 이연실 이영미 이영분 이영애 이영표 이옥희 이유정 이윤상 이윤선 이윤성 이윤옥 이윤희 이은미 이은상 이은애 이은정 이인희 이재인 이정순 이정아 이종란 이종환 이주희 이지선 이지은 이창윤 이철현 이춘미 이푸른메 이혜득 이혜진 이혜경 이혜숙59 이호숙 이호진 이효숙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순영 임지영 임종은 임주희 임홍섭 장 진 장다혜 장순례 장윤경 장윤정 장철우 장혜순 전민숙 전성혜 전유경 전홍석 전희진(김환수) 정경애 정교화 정남은 정대현 정문영 정민기 정순희 정신애 정여진 정연배 정영석 정영선 정옥실 정유석 정은선 정은숙 정인숙 정정희 정현주 정혜련 조 은 조계삼 조랑말 조민우 조선주 조성천 조소연 조수현 조순희 조영석 조용주 조은숙 조은영 조은희 조인옥 조재학 조중신 주명희 지인순 차성안 차혜령 채우리 채현숙 천정환 최경식 최광식 최금희 최기홍 최동석 최명현 최보원 최석우 최선규 최선아 최아림 최양렬 최영애 최옥경 최용득 최윤수 최윤정 최은경 최정운 최지녀 최진아 최현무 패킷미디어 표창원 하은주 하진옥 한경희 한기모 한덕훈 한병규 한보경 허은주 홍기선 홍길표 홍만희 홍보연 홍성복 홍순기 홍윤기 홍은정 황성기 황순경 황영희

2004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나눔터 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민 박귀미 박지나 보라 이성현 장미소 지현 최진희 한혜연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

강정자 강학중 고정미 권윤진 김경현 김정희 니콜라 변혜정 손용석 안형정 이명선 이미경 이병규 이상구 장필화 정경자 정재정

지난 5월 기금마련 일일호프에서 가수 지현님이 공연비 중 50 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품기증해주신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책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최아림



엄마가 되어 엄마를 알았습니다

저를 낳고 많이 웃었다 하셨습니다.

밤 늦은 귀가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여행 갈 때면 조심하라는 말을 몇 번도 더 하셨습니다.

결혼식 내내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집살이 하소연에 당신이 죄인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가장 크게 웃어 주셨습니다.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된 오늘, 엄마를 알겠습니다.

당신이 아파서 저를 낳았고

당신이 주어서 제가 가졌습니다.

아이가 저를 바라 보는 것처럼

저도 엄마를 기쁘게 보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Bravo your Life!

삼성생명이 어머니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본 상담소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4만 1천여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부설<열린터>와 생존자지원지킴이동체<하담>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가 수 있습니다.

- 상 담 ☎ (02) 338-5801~2 ■ 인터넷 상담 : ksvrc@chol.com
 ■ 열린터 ☎ (02) 338-3562 FAX : 338-1007 ■ 하 담 ☎ (02) 338-3563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어린이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성교육 지도자 교육/ 자녀 성교육 지도/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의뢰 문의 ☎ (02) 338-2890~2

■ 이사장 김삼화 ■ 이사 김삼화 김성천 문해란 이명숙 이미경 이백수 이유정 장철우 최보원 표창원 홍순기 ■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 자문위원 · 교육 교사/김성에 백영애 교육학/김인수 서영근 정유성 현기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저널리스트/박미라 청소년교육/이규미 · 법률 법학/한인섭 조국 김엘림 변호사/강기원 고미진 고순례 김삼화 김의창 김재련 남성렬 박성호 박찬운 손명숙 윤영규 이명숙 이백수 이유정 이지선 이창윤 이향아 임종인 장경호 장철우 정성광 정연순 천정환 최은순 최현희 경철/김장자 이금형 ·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상담심리학/권혜수 김순진 김정규 이윤로 이장호 이혜성 장연집 정남은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 이원숙 한인영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정영숙 법의학/강신몽 권일훈 문국진 서중석 이경룡 이윤성 최영석 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 이윤수 산부인과/김주필 김현식 김홍배 문영규 민용기 박금자 박종민 손인숙 안명옥 윤경 윤연정 이길여 이신애 이옥주 임용택 정경원 조삼현 조정현 최보원 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 신의진 최보문 임태식 외과/오세민 주수호 예방의학/이용호 응급의학/원형섭 임상병리학/강정욱 문해란 정신과/김광일 김병후 김정일 남정현 박수용 박진생 양창순 유재혁 이혜련 이호석 윤영민 이수경 전지홍 조맹재 최진숙 치과/이상엽 안준영 한의학/강명자 김영권 김영선 김효진 서은미 이은미 호흡기내과/ 안철민 · 재정 프리랜서/여난영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윤영도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유숙 최선열 여성학/박혜란 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진 남우희 이인자 PD/ 고학찬 조소/홍성도 · 21세기여성 · 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 강명구 김양희 김훈순 원용진 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 국제협력/김선영 김사강 김사라 니콜라 박신미 안연선 이성숙 정경자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변혜정 사회복지학/권진숙 이원숙 사회학/김준호 심영희 여성학/김은실 이명선 이재경 장필화 조주현 임순영 차옥덕 이경미 김지혜 철학/이상화 정대현 아동복지학/장화정 청소년연구원/김선옥 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린 사회학/박진숙 ■ 소장 이미경 ■ 상담소 상근활동가 정하경에 정유석 김지선 권김현영 김양영희 김김보연 권주희 ■ 열린터 활동가 김영서 김미영 이어진 ■ 열린터 원장 조중신 ■ 하담지기 원사